

1/29/17

설교 제목: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의 개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5:50-58

(고전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전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절관주** 마 24:31

(고전 15: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전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전 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절관주** 롬 4:15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1960년대 최희준씨가 불러 히트를 쳤던 '하숙생'이란 노래를 같이 불러 보길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간다

인생은 별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별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없이 흘러서 간다
가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노래에서 말하듯이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하염없이 헤매며 걷고 또 걷다가 죽어 최종 종착지인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천형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 자신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는데만 온통 시간과 정신을 쏟아 붓지 죽는다는 무관심을 하여 준비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죽으려고 사는 것같이 삶을 위해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반면 죽음을 위해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이 필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죽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무섭고 두렵게 다가와
처음부터 자포자기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만 믿고 그 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당신을 믿어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인 성도들에게 그들도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의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나이가 아직 서른 중반도 안 되었는데 설마 벌써 죽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수난을 받으신 후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돌아가시기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셔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 부활하기 전까지 단지 삼일만 필요한 무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돌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 주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장사되긴 했지만 삼일만에 부활하신 연유로 그 무덤은 단지 삼일만 쓰고 텅 빈 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 인간도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73 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80 세에 죽어 인도 참수 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63 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텅 빈 무덤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의 개가를 부른 것입니다.

(고전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부활된 몸은 썩어질 현재의 몸과는 다른 썩지 않는 몸일 것입니다.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전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전 15: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비밀’이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을 말하며 여기서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때 잠자는 사람 즉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미완성 상태였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Already, not yet!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련의 재앙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에 세상 끝날 직전에 연속해서
일어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세 재앙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곱 인 재앙이 바로 일곱 나팔 전체의 재앙이며, 일곱 나팔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전체의 재앙으로 상호 연결된 하나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일곱이란 숫자는 천지 창조의 7 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7 단계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 단계로 세상을 일관되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 주고 있어서 결국 창조도 심판도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중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이자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입니다.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살전 4: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전 4: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며 아주 순식간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먼저 죽은 자들이 변화되고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고전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르던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는 사망에 대해 영원히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사망은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질 것입니다.

(고전 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도는 사망을 호령합니다.

사망은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히 죽지 않는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 죄값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모두는 사망의 영향권 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을 호령하고 생명의 개가를 부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고 무덤은 더 이상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권면합니다.

첫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말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로 당시 이단 세력에 노출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람의 유혹이나 핍박, 기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요동치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복음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 즉 주의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과 재능을 풍성히 드리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갈라집니다.

부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필히 다가올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부활의 새 옷으로 갈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 아닌 생명의 몸, 약하고 욕된 몸이 아닌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 유한의 몸이 아닌 영원의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죽음의 멸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권세자인 죽음이 멸망하고 죽음과의 싸움은 승리로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영원히 패할 것이고 무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 보십시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시길 축원합니다.